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들풀의 생태를 통해본 자율적 리듬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전공

손 자 경

들풀의 생태를 통해본 자율적 리듬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미디어·프린트전공

손 자 경

인 준 서

손자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5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전에 발표한 작품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원 재학 중 제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작품제작의 동기와 제작 기법과 과정을 분석하여 작품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도 하였으며 본인의 예술관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산업사회를 지나며 발전을 거듭한 인류의 물질문명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도시의 확대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창조질서 속에 내재한 생태의 적정성과 균형이 파괴되어 생태계의 급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변질된 환경은 인간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예술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예술과 환경, 그리고 현실에 대한 관심은 그 시대의 정서를 반영하여 예술작품 안에 직간접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인의 작품은 현대화의 확대로 잊혀져가는 자연을 상징하는 야생초를 통하여 자율적 생동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주변, 본인의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자생적 야생초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외면되고 있는 소외된 존재이다.

본인의 회화에서 야생초는 드로잉적 표현과 판화기법을 통하여 생동감이 더하여지고 생명과 자율적 존재를 상징하는 매개가 된다.

현대인은 도시화된 환경에서 편리함을 만끽하고 있지만 자연인으로서의 육체와 정신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은 자연에서 휴식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면서도 물질문명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한다.

본인은 이름 모를 야생초에 은유적 표현을 더하여 정서의 정화를 불러일으키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물질문명 속에서 건조해진 인간의 정서를 자연에 내재된 생명력과의 교감을 통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생동하는 자연을 표현한 작업 안에도 무력감과 건조함을 넘어서서 생기 있는 주체적, 자율적 자아로 거듭나게 하는 동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율적 생명감이 충만한 예술을 통하여 인간성이 회복되고 이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본인은 위와 같은 생각을 드로잉적 표현과 판화매체를 이용한 기법을 적용하여, 자연에 내재한 생명력 있는 자율적인 생동감을 표현하여 정서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고를 통하여 본인은 자연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로 야생초를 차용하여 생태환경의 생명력을 재확인하고 인간정서의 회복과 자연에의 회귀를 통한 인간적 삶의 영위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본인의 조형적 창작활동이 생명력의 회복을 통한 현대인의 정신적 풍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4
1. 자연과의 상생	4
1) 환경	4
2) 주변생태	6
3) 회귀 본능	8
2. 들풀 이미지를 이용한 자율적 생동감의 표현	10
1) 이미지의 유기적 조합	10
2) 신체의 자율성을 통한 표현	13
3) 디지털 이미지와 목판기법의 혼용	15
III. 작품 설명	17
V. 결 론	45

참 고 문 헌

참 고 도 판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태동, 100x60cm, Wood cut, 2002	17
【작품 2】 In the nature, 100x60cm, Wood cut, 2002	19
【작품 3】 Wild flower, 38x13cm, Aquatint, 2003	21
【작품 4】 In the nature, 65x40, Lithograph, 2003	23
【작품 5】 Wild flower, 80x40cm, Lithograph, Silk screen, Wood cut, 2003	25
【작품 6】 Wild flower, 80x40cm, Lithograph, Silk screen, Wood cut, 2003	28
【작품 7】 The tree, 180x80cm, Lithograph, Silk screen, Wood cut, 2003	31
【작품 8】 Wild flower, 86x55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34
【작품 9】 Wild flower, 86x55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37
【작품 10】 Wild flower, 86x55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39
【작품 11】 Wild flower, 42x29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41
【작품 12】 Wild flower, 42x29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43

I. 서 론

인간은 매우 자연적인 존재이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나신으로 태어나서 자연과 호흡하며 살다, 숨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자연이 된다. 자연은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오염한 질서 안에 존재하며, 신선한 먹 거리로 육체의 건강을 주고 충만한 생명감과 오염한 질서로 정서적 유익을 가져다준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인격이 형성되는 유년기의 경험은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개인의 성격과 인성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본인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자연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에서 성장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자연이 가지는 생명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자연과 인간이 질서 속에서 상호작용 할 때에 바람직한 생태환경이 유지 발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현대는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세계로 가속되면서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을 도구화 하면서 소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물질세계 속에서도 자연의 생동력은 더욱 삶의 활력을 갖게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본인은 작업에 자연의 생동감과 야생초의 생명력이 본인의 신체를 통하여 재구성되기를 기대한다. 자연과 호흡하던 유년의 기억을 조형의 과정에서 재구성하며 자율적인 표현을 더하여 새로운 질서를 표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연에서 성장기를 보낸 정서를 바탕으로 생명력을 이미지화하여 판화로 제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조형적 효율성을 가질 것 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자연의 생명감이 나타난 이미지의 시각화와 이를 판화로 제작하면서 갖게

되는 조형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야생초의 생명감을 드러나게 하는 조형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드로잉적 표현과 판화제작과정에서 파생되는 신체성을 극대화함으로 신체의 자율성을 통하여 화면에서 생동하는 리듬감을 제시하는데 이의 조형적 특징과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의도의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써 산출된 자연이미지의 생동적 표현을 통해 제작된 작품을 분석하여, 객관적소통의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자생적 들풀의 자율적 리듬을 주제로 자연에 내재된 생명감을 표현하고자 제작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시된 개념과 실행된 조형언어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분석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소통의 가능성을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일부이며 주변 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임에도 현대사회의 인간은 어떻게 자연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유년기의 환경은 정서와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근원이며 작업의 주제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연과 호흡하며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으며 자연에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게 되기에 궁극적으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둘째. 본인은 생동감 있는 자연, 현대문명과 대비되는 생명감을 나타내기 위해 자생적인 들풀의 이미지를 소재로 유기적 조합과 주관적 상징을 자율적인 생명감으로 승화 하고자 시도 하였다.

특히 판화기법을 통하여 생동감을 강조함으로 자연이 주는 생명감을 나타내고자 한다.

셋째.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여 개념과 조형언어가 어떻게 상관관계를 형성

하고 자율적 생동감으로 형성되어 객관적 소통의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자연과의 상생

1) 환경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인간에게 생활의 편의와 풍요를 제공하였다. 기계 문명의 주체자인 인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물질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근원인 자연으로부터 멀어진다.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의 시작은 산업화의 영향에 의해 시작되어진 것이 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연을 무차별하게 개발하고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자연을 정복하고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의 주변에서 온전한 자연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유년시절의 기억 속에 자리한, 자연과 호흡했던 느낌들을 조형적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주위에 자생하는 야생초와 나무를 바라보노라면, 유년시절에 가졌던 충만한 자연 에너지의 느낌을 되새기게 되어, 자연이 가지는 생명력을 다시 반추하게 되었고, 자연과 인간이 질서 가운데 상호작용 할 때에 비로써 바람직한 생태환경이 유지 발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일상의 도시 생활에서 생명감이 충만한 환경 그대로의 자연을 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의 조경, 가로수, 분재 등은 환경과 인

간과의 접촉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회귀적 본능의 충족을 위한 시도일 뿐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변형된 자연의 화초를 통하여 위로 받기도 하고 즐기기도 한다. 온실에서 길러진 화초는 원하는 대중들의 요구에 맞게 수정되고 조절되어 생산된다. 심지어 서로 다른 도시에서도 동일한 규격의 화초가 유통된다. 그러나 온실 속에서 길러진 화초는 다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 오래 두고 볼 수도 없고, 자생력이 소진되어 꽃 피우는 것과 새싹을 생성하는 기능이 야생초와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진다.

본인의 유년시절의 주변에서는 수줍게 흔들리는 들풀들을 흔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다. 들풀의 생명감은 바람에 저항하는 줄기와 잎새의 떨림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 저항과 바람을 타는 듯 자연스러운 흔들림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며, 자율적인 리듬을 타고, 질긴 생명의 선율을 아내에게 한다.

질서와 자정능력이 있는 자연은 인간과 교감의 대상이며 공존하는 상생의 존재이다. 자연 안에 있는 상생의 질서와 생명감의 충만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한다.

자연 안에 있으면 상생의 질서와 생명감의 동경은 무의식적으로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정서를 가지게 된다. 자연과 분리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오히려 지난 추억의 시간으로 그리고 기억속의 장면으로 회귀하고 싶어 때가 있다.

본인의 작업 과정에는 자연의 생명감을 닮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야생초의 생동감을 강조하기 위해 드로잉적 표현과 자동기술적인 표현을 시도하고 속도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리듬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태도는 야생초가 가진 생명력이 충만한 생명의 에너지로 작

업에 표현되어지며 본인의 삶 속에도 건강하게 작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 주변생태

환경은 넓은 뜻으로는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실체’ 들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 보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 들을 뜻한다. 또 환경의 어원을 살펴보면 환경은 둘러싸인 구역이나 경계를 뜻하며, 사람의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 사정, 상태를 말한다.¹⁾

인간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환경은 인간 주변을 둘러싸고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극, 정보를 받으며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다. 환경 밖에서는 인간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동, 식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유습관과 생활양식에 의해 여러 형태의 생태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문화생활이 발달되지 않았던 원시시대의 인간생활은 자연과 더불어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연환경 그 자체만으로도 쾌적과 안정, 건강 등을 증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해 수공업이나 가내공업에서 공장공업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 결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은 물론 인간소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20세기 초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농학, 공학, 의학 분야에서 질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한 물건이 만들어져 실생활에 공급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기 시작했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물질문명에서 파생된 대기오염, 쓰레기 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의 환경오

1) 박이문, [환경철학], 미다스 북, 2002, p. 52

염에 의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²⁾

환경 파괴는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와 균형이 궤도에서 벗어날 때 발생하며, 자연적 이탈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자연환경이 손괴 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현대화정책에 의해 파생된 인간증가에 따른 자원의 고갈, 오존층 파괴, 생태계 위협과 지구의 온난화현상등이 이 지구를 더욱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인간과 환경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원인 행위자도 인간이고, 환경의 피해자도 인간이다. 즉, 환경에 대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인간인 셈이다.

도시개발을 하거나 주택을 짓기 위해서, 또는 도로나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야생 동, 식물의 생태질서가 깨져 그곳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사멸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만다.

자연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인간의 교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이외의 존재자도 인간 못지않게 각기 그 고유의 권리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고, 동물이나 다른 생물체들만의 공간도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자연과 더불어 함께 협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인은 자연과의 상생의 의지를 조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미래환경 연구소, [지구촌 환경 이래도 될까], 범우사, 1995, p.72.

3) 회귀 본능

자연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자연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환경의 위기, 문명의 위기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문명의 위기는 곧 환경의 위기이며, 환경의 위기는 곧 생태계 파괴의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 인간만의 번영을 위해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환경과 인간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으며, 물고기는 물속의 생명체로서 물의 일부이다.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는 죽는다.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고 다닌다고 해서 물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생명을 잃는다.³⁾ 사람 또한 환경을 떠나서는 생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연환경과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환경 안의 생명체로서 환경의 일부이다. 환경과 사람을 분리하여 대립한다고 보고, 환경을 사람이 이용하는 생명 없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은 점차 생명을 잃어간다.

공기와 물, 땅이 오염되면 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모든 식물이 오염되고, 결국은 동물과 인간도 오염된 먹 거리로 인하여 희생된다.

자연 생태계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스로를 그 근원으로부터 분리하고 차단해 왔고, 땅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아니 오히려 땅과 자연에서 벗어나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자연의 생명력을 수탈함으로써 풍요롭고 편리하게 잘 살수 있다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의 눈앞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단지 땅을, 자연을 떠나서는

3) 박이문, [환경철학], 미다스 북, 2002, p.125

살 수 없는 존재 일뿐 아니라 땅과 우리 존재는 원래부터 분리 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자연과 땅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자연과 우리가 본시 한 생명이라는 자각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속의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아와 지금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이란, 생명과 존재의 근원인 자연과 교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자연과 조화되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 새로운 삶과 문명을 여는 일이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객체로서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면 비로써 자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돌아감이란 무엇인가. 잎새는 그 뿌리로 돌아가고 만물은 그 본원으로 돌아간다. 뿌리 뽑혀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화려한 꽃도 뿌리로부터 잘려지는 그 순간 곧바로 시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육신 또한 돌아갈 곳은 땅이고 자연의 품이다.

인간(humanus)이란 말도 흙(humus)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듯, 결국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그 본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본질을 잊고 있을 뿐인 것이다.⁴⁾

4) 송상용외 22명공저, [생명에 대한 예의], 환경과 생명, 2002, p.14

2. 들풀 이미지를 이용한 자율적 생동감의 표현

1) 이미지의 유기적 조합

야생초는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물질문명에 균락을 빼앗기며 더 이상 주목 받지 못하는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이르게 되면 식물도감에서 복제이미지와 이름을 찾게 되고 실제 야생초를 보게 되더라도 구분할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들풀의 생태를 주목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들풀은 인간의 돌봄 없이도 자생하며 균락을 이루고, 싱그러움과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들풀은 같은 종에서도 어느 하나같은 것이 없고, 매우 다양한 자태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의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초의 질긴 생명력은 바람이 불 때, 지루한 장마 때에 더욱 돋보인다. 경쾌한 리듬을 반복하며 흔들리는 들풀의 자태는 거대한 고가도로 보다 더욱 강인한 인상을 준다.

본인은 본인의 그림에서 자생적인 생명감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나하나 독립적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생명감이 충만한 이미지의 조합을 시도한다.

자연은 오묘한 질서 안에서 존재한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들풀, 말라 죽어 있는 것 같은 대지에 봄이 오고 비가 내리면 자생하는 야생초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다. 본인은 본인의 작업에도 자율적인 생명의 리듬이 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본인의 작업 과정에서 설정된 유기적 조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상의 종류	이미지 선택
① 들풀 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년기 경험적 대상으로써 들풀 • 현재 살고 있는 주변공간에서 발견된 들풀
② 들풀 이미지들의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이미지와 목판화의 조합
③ 고가도로와 들풀의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계천 고가도로 이미지와 들풀 군락의 오버랩
④ 들풀과 철길의 의도된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의 한계 상황을 의미하는 뿔혀진 들풀 • 속도와 문명의 가속화를 상징하는 철도 이미지
⑤ 도시 불빛 이미지와 들풀군락의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도시 불빛의 이미지와 들풀군락의 오버랩

① 들풀 형상

유년기에 선협한 들풀을 포함한 주변 생태는 기억 속에 내재 되어 있다가, 회색 도시의 씩 없는 바쁜 일상에서 지칠 때에 떠오르는 안식처와 같은 이미지이다. 꽃이나 열매처럼 화려함을 주목받는 것이 아닌 질긴 생명력으로 항상 곁에 있어왔던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이다. [참고 도판 1]

현재의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들풀은 유년기에 경험한 야생초의 군락 같은 풍부한 생명감은 아니지만 자신의 존재를 깨끗하게 지키고 호소하는 자태를 보여주며 기억 속의 생명감 넘치는 야생초의 자연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 [참고 도판 2]

② 들풀 이미지들의 조합

사진으로 차용한 이미지를 컴퓨터 프린트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여기에 배

니어 목판을 프린트하여 판각에 의한 생동감과 컴퓨터 프린트가 갖는 풍부한 색조가 동시에 표현되게 된다. [참고 도판 3],[참고 도판 4],[작품 6]

③ 고가 도로와 들풀의 조합

청계천 고가도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건축기술의 상징으로 군림하였으나 인간의 생존에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대두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현재는 생태 하천으로 복원되었다.

생명감이 있는 들풀군락과, 인공적인 고가도로 형상이 대조되도록 조합함으로써 각각의 들풀은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 개체를 조합하여 밀집된 숲의 느낌과 생명감이 더욱 강조 되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④ 들풀과 철길의 의도된 설정

철길의 설정은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현대 문명의 속도감을 상징하면서 강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다. 철길위에 놓여진 야생초는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자연을 상징하며 사멸의 기로에 서있는 도시주변의 자연을 의미한다. [참고 도판 6],[작품 2]

⑤ 도시 불빛이미지와 들풀군락의 조합

도로 위에서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차량 불빛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 군락의 야생초는 나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지며 자율적인 느낌의 흔들림을 표현하여, 두 이미지는 오버랩 되어 공존처럼 보이면서도 새긴 부분의 야생초가 엠보싱으로 살아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조합하였다. [작품 3]

야생 초목은 현대인의 관심 밖에 존재하여 약용, 식용등 용도가 분명함에도 무지로 인하여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생활로 빠르고 간편한 식생활을 추구하게 된 결과이며 복잡한 사회에서 매우 분화된 일을 하게 되면서 농업사회 만큼 자연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콘크리트 고가도로는 현대인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주는

편리함이 있으나 시야를 가리며 삶의 공간을 가로막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용도가 주는 이로운보다 예상치 못했던 정서적 삭막함이 더하게 되는 것이다.

야생초목과 도시의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대비는 야생초의 존재감과 생명감을 역설로 부각시켜 준다.

빠른 속도로 표현한 야생초목의 이미지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듯 스스로 역동하는 에너지가 느껴지게 표현하여 도시의 경직된 고가 도로와 분명한 대비가 되게 하였다.

화면에 그려진 야생초는 근접하여 보면 흔들리는 점과 선이지만 거리를 두고 보면 생명체로 보여 지고 멀리서 보면 생명력이 내재된 숲으로 느껴지도록 의도 하였다.

밀집되고 겹쳐지는 과정에서 유약한 개체는 유기적인 관계의 균락으로 형성되고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된다.

드로잉적 표현과 핸드드릴을 이용한 표현은 손의 자발적인 진행과 전동 드릴의 자동기술적인 과정으로 자율적인 리듬을 갖고 이러한 흔적이 연결되면서 야생초가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하나의 생명의 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철길위에 놓여진, 야생초는 매우 인위적인 설정인데 사멸의 기로에 서있는 개발지 주변의 자연을 의미한다. 화면의 구도는 두개의 화면을 양쪽으로 길어 보이는 직사각형을 사용하여 마치 양옆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고려하였다.

2) 신체의 자율성을 통한 표현

본인은 작품에서 야생초의 이미지가 재현되는 것 보다, 생동감이나 질긴 생명감이 나타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현은 아무리 정교하여도 원

본만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신체가 이미지에 종속되게 되면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은 손놀림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서 야생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일정한 반복된 방법을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왼손을 쓰기도 하고 안보고 새기기도 하며 자유로운 리듬을 생각하며 표현하였다. 전동드릴을 이용한 때에는 자동 기술적인 표현으로 생동감이 강조 되도록 의도하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리듬감이 나타나도록 의도한다.

잭슨 폴록에 의해 널리 알려진 자동기술적인 표현은 무의식이 미술의 근간일 수 있다는 자동주의에서 출발한다. 신체의 역동적 제스처에 의해 계속적으로 뿌려지는 물감의 분출은 바탕과 형상의 종속에서 벗어나 신체의 움직임과 물감의 물성의 자율에 따라 자유로운 복합적인 세계를 구축한다.

화가는 화면의 구성을 정교하게 계산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자유로운 신체행위 속에 내재된 무의식의 작용으로 회화의 공간이 결정되도록 한다. 에나멜물감의 유동성을 이용하여 물성이 자유롭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폴록의 회화는 매우 우연적인 결과의 화면으로 구축된다. 그리하여 마치 무의식의 세계가 무계획적이면서 자율적으로 나타나서 매우 자유로운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본인의 작업은 의식내면에 추억이나 정서로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부분을 현시점에서 보고 느낀 대상의 이미지와의 결합하여 판화기법으로 표현함에 따라 손의 자율성이 조각도와 전동드릴을 통하여 판각되기에 예리하고 역동적인 느낌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 속에 질긴 생명감을 뿜내는 야생초의 건강한 몸짓이 리듬을 타듯 흔들거리며 생동하게 되는 것이다.

드로잉의 자율적인 변주, 야생초의 생명감 있는 선적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색은 절제하여 표현한다. 화사한 색상이 도입된 그림의 경우에도 색을 강

조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선들이 더욱 생기 있게 대비되어 보이도록 표현한다. 그림의 전반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청색 또는 보라는 야생초의 내적 에너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에칭으로 표현한 흑백의 야생초는 자연의 위기의식과 질긴 생명력을 상징하여 표현 하였다. 첼로는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현대문명의 속도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3) 디지털 이미지와 목판기법의 혼용

실체가 아닌 가장된 사본이미지는 원본을 대체하여 소통된다. 심지어 효과적인 시뮬레이션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호도하기도 하며,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기록된 대부분의 이미지는 이미 렌즈에 의해 변형되었음에도 실제 재현으로 인식한다.

디지털 이미지는 모두 점으로 기록된다. 사람들의 시 지각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이미지로 혼동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는 이미 매우 널리 보급되어서 일반적인 사무환경에서도 상용화되고 있다. 본인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들풀의 이미지를 입력하여 프린트하여 사용한다. 출력된 이미지는 실제보다 더욱 화사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밝음과 어두움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연속적인 관계로 표시하는 아날로그 방식에 비하여, 디지털 방식은 이미지를 색점, 즉 픽셀(pixel)⁵⁾단위로 저장한다. 각각의 색점은 계산된 수치에 의해 결정된다. 디지털 방식은 비트(bit)단위의 수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생회수나 시간 복사회수에 상관없이 원래의 이미지를 유지하기에 원본의 개념, 유일성의 아우라, 소유권의 매력이

5) pixel(화소)는 Picture Element의 약어이다. 그래픽 화면에서 작은 점의 열과 행으로 구성되는 각 픽셀 해당 점의 농도와 색상 등의 정보를 갖게 된다.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에 따라 화면의 질이 결정 된다.

재해석 된다.

본인이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점으로 프린트된 복제 이미지와 목판의 거칠고 강렬한 선적이미지의 대비를 통하여 화사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컴퓨터로 출력한 디지털이미지는 본질적으로 평면적이며 색상이 화사하여도 점으로 출력되어, 인화된 이미지에 비하여 선명하거나 정교하게 구분되어 보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목판의 선은 화려함이나 섬세함은 적으나 선명하고 분명하며 역동적이다. 특히 프레스로 압력을 높여 찍기 때문에 나타나는 엠보싱은 더욱 역동성을 높여주게 된다.

디지털 이미지는 매우 간편하게 대상의 이미지를 유사하게 구축해주는 편리함이 있다.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동원되어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만 힘들어파는 방법으로 구축된 목판의 에너지는 디지털 이미지와 대비되어 더욱 생동한다.

목판은 자연스러운 느낌과 판의 자율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결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조각도는 예리하면서 신체의 놀림이 나타나도록 자유롭게 사용한다. 목재의 재질감과 조각도의 예리한 새김의 정도차이가 만나서 매우 생동하는 판이 형성된다.

전동 드릴은 이미지의 떨림이나 존재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등이 나타나도록 표현하며 전동의 자율과 감각적 제어를 반복하여 생명감으로 충만한 화면을 구축한다.

디지털 프린트와 목판을 혼용함으로써 목판사용만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풍부한 색채와 야생초의 실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프린트의 평면적인 면에 목판을 혼용함으로써 자유롭게 거칠 결의 표현과 선적 이미지의 대비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목판의 재질과 신체의 자유로운 새김과 프레스의 압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엠보싱은 입체감과 생동감을 더하여 주어 자연의 생명감을 나타내게 된다.

Ⅲ. 작품 설명



【작품 1】 태동, 100x60cm, Wood cut, 2002

【작품 1】 태 동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욱 명확하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 예를 들면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여주는 바람의 흔적, 엄마 배속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태동과 같은 에너지, 모호할 수 있으나 묘한 설레임을 동반하는 자율적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다.

지도를 복사기위에 빠르게 스쳐지나가 지도 이미지와 스피드가 나타나 도록 하여 복중태아의 초음파 사진처럼 표현 되도록 하였다.

정확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위해 작은 크기의 망점필름을사용 하여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목판위에 프린트하고 이를 밑그림 삼아 볼록 기법으로 판각했다.

조각도를 사용하여 생명의 파동처럼 흔들림이 생성되고 멀리 사라지도록 표현하였고, 복중의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 지도이미지가 느껴지도록 하고, 핸드드릴을 이용하여 자율적이며 불규칙하고 모호하면서도 에너지가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그림 아래의 여백에는 엠보싱효과를 주어 프린트한 태동이미지가 더욱 입체감이 들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지도는 실제 환경이 아니지만 약속된 기호체계로 누구나 동일하게 지형의 모양과 상태 주변 환경을 예상하게 된다. 지구는 둥글고 자전, 공전을 하며 움직이지만, 우리는 펼쳐진 평면의 세계지도를 가지고 나름의 상상을 통하여 인지하고 판단한다.

지도라는 상징체계는 실제 환경을 대신한다. 지도를 움직이며 복사하면 이미지가 일그러지나 오히려 생동하는 느낌이 생기는 묘한 느낌을 준다.



【작품 2】 In the nature, 100x60cm, Wood cut, 2002

【작품 2】 In the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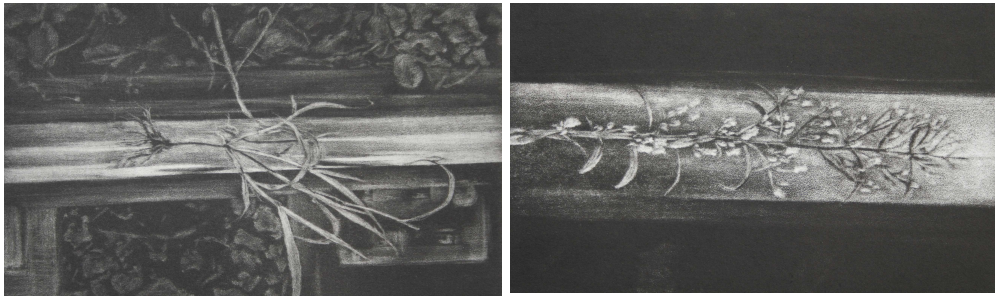
유년시절 주변 환경은 산으로 둘러있었기에 자주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오를 때 산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본인에게 비춰지게 된다.

집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꽃, 새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함께 조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자연 속에서의 삶은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정서의 안정과 무의미해 보이는 작은 것들까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안목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

지도는 자연의 상태를 약속된 기호로 도면위에 나타낸다. 지도를 작동중인 복사기위에 빠르게 스쳐지나가 지도와 자연의 이미지가 적절이 조화 되도록 하여, 자연 안에서 자유로운 동물과 시원한 바람에 흔들리는 식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나타나도록 표현 하고자 하였다. 실제 환경의 상징체계를 대신하는 지도는 그 안에 가상의 환경, 인간 그리고 동, 식물의 존재를 함축한다. 모든 생명체의 포함을 상징하는 지도를 차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할 때 바람직한 환경이 유지발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한다.

각도는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하여 모든 것이 조화롭게 보이도록 하고 이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보다는 유년의 의식내면의 추억과 정서를 그리고자 하였다. 핸드드릴과 조각도를 이용하여 손놀림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여 자연의 시원한 바람에 흔들리는 식물들과 각각의 다양한 지붕들, 창공을 향해 자유롭게 날개 짓 하는 새, 자연스럽게 주변과 조화된 전신주 등을 생동감과 움직이는 듯한 리듬감이 나타나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엠보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린트하기 전에 판화지에 물기를 더하여 높은 압력으로 프린트하여 생동감이 충만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3】 Wild flower, 38x13cm, Aquatint 2003

【작품 3】 Wild fl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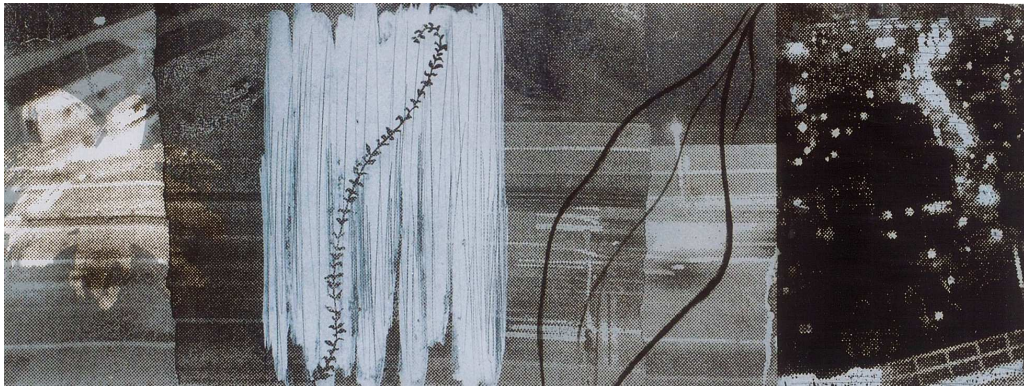
동판화 아퀴틴트 기법으로 표현한, 흑백의 야생초는 뿌리 뽑힌 채 철길위에 놓여 있어서, 나약한 존재감과 동시에 질긴 생명력을 상징한다. 철길과 배경 그리고 야생초의 잎새를 동적으로 표현하여 부드러운 리듬감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우리주위 어디에서나 흔히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며 척박한 땅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섬세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아퀴틴트를 선택하였고, 세련되게 표현하기 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면과 버려진 자연을 은유하여 표현함으로써, 소외되는 자연을 상징하고자 하였다.

철로의 설정은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현대 문명의 속도감을 상징하면서 강인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아퀴틴트한 동판을 스크레이퍼로 좌우를 흔드는 듯한 느낌으로 문질러서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표현하였다. 실제감 있는 묘사 보다는 철길의 인상이 느껴지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철길위에 놓여진 이름 모를 야생초는 매우 인위적인 설정의 구도인데 문명의 확장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자연을 상징하며 사멸의 기로에 서있는 도시주변의 자연을 의미한다.

야생초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가는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그림자의 표현을 강조하여 존재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옆으로 길어 보이는 화면을 선택하고 두 작품을 나란히 보여줌으로 철길의 속도감과 확장의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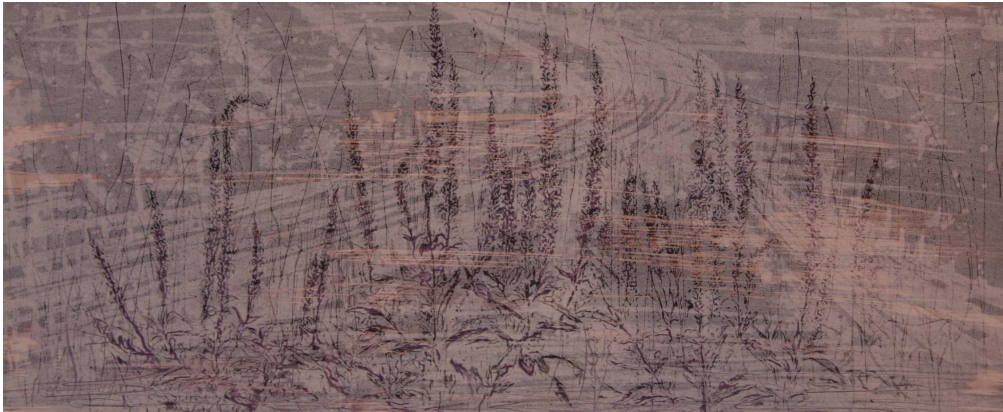
【작품 4】 In the nature, 65x40, Lithograph,2003

【작품 4】 In the nature

현대의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고가도로, 자동차, 고층건물의 숲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아니 익숙하기보다는 생활의 주변 풍경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고가도로는 현대인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시켜주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야생초는 물질문명에 균락지를 빼앗기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

야생초와 고가도로의 대비는 야생초의 존재감과 생명감을 역설로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은색을 사용하여 꽃모양을 제외한 바탕을 전체적으로 프린트하여 물질성을 상징하는 산업화된 도시를 의미하고 망점으로 이루어진 고가도로 이미지를 석판을 이용하여 전사하여 프린트하였다. 바람결에 흔들리듯 자연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익명의 야생초 이미지를 제외하고, 붓 터치와 스크래치를 나타내어 흰색 물감으로 프린트하고, 색연필을 사용하여 나뭇잎의 떨림을 나타내어 자연스럽게 드로잉하여 경직된 고가도로와 분명한 대비가 되게 하였다. 흰색물감위에 도시의 야경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도시화로 인해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공허하게 만들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5】 Wild flower, 80x40cm, Lithograph, Silk screen, Wood cut, 2003

【작품 5】 Wild flower

도시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의 자연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 편리함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건축물은 자연을 훼손하며 나날이 양적팽창을 진행한다.

그러나 인간은 호흡과 에너지를 자연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주변 환경은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자연과 분리할 수 없는 환경의 일부인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인용된 고가도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시의 가속화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의 상징이다.

토너가루를 알콜에 희석하여 석판위에 거친 붓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바탕을 거친 터치로 빠르게 스쳐지나가 보이도록 하여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 고자 하였다. 새벽에 자동차가 라이트를 켜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 또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라이트의 빠른 불빛처럼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판단하기도 전에 또다시 변해가는 체계들로 인간은 소외되고 공허하며 상실감을 갖게 된다.

본인은 목판 사용을 좋아한다. 나무의 결은 질서 속에서 변화가 있으며 견고하나 새김은 자유로 와서 야생초의 강인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재료이다.

현대의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고가도로, 자동차, 빠른 불빛을 사진 이미지로 차용하여 전사의 방법으로 석판화로 표현하였으며, 목판으로 흰색물감과 미디움을 섞어서 찍어 먼저 찍힌 시간의 느낌과 도시의 상징물들의 이미지를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고, 덮어 찍히지 않은, 목판의 깎여나간 파여진 부분으로 야생화 이미지를 보이게 하였다.

베니어합판을 사용하여 덮어 찍은 때 드릴과 조각도를 이용하여 파낸 부분에 먼저 찍은 도시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드릴로 파낸 부분은 어두운 바탕으로 남아 있어서 야생초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의도하였다.

야생화는 균락으로 보이도록 표현하여서 생명감을 강조하였으며, 전동드릴의 자율적인 선으로 리듬과 선율을 강조하였다.

야생초의 이미지를 살리는 부분은 전동드릴을 세워서 닳게 보이도록 표현하였고, 잎새와 줄기 주변의 이름 모를 풀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뜻하게 전동드릴의 자율적인 흐름이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본인이 성장한 자연의 공간, 시원한 바람과 햇살의 기억을 되새기며, 나약하지만 매우 분명한, 작은 것 같지만 무한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야생초의 자율적인 느낌과 생명력, 바람결의 흔들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바람을 타는 듯한 야생초와 고가도로의 오버랩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의 틀을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인공과 자연이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공존하는 환경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6】 Wild flower, 80x40cm, Lithograph, Silk screen, Wood cut, 2003

【작품 6】 Wild flower

자연은 오묘하고 신비롭다. 꽃눈과 잎눈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은밀하게 변신이 시작된다. 봄이 되면 잎을 키우고, 꽃을 피워, 진한 향기를 만든다.

산들거리는 미풍 속으로 향기를 전하고, 자연의 싱그러운 공기와 소리는 지친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쉬게 만들어 주고, 숨쉬기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자연이 만드는 다양한 소리가 우리주변에 지천으로 있지만, 아쉽게도 오늘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없다.

본인의 유년시절의 한여름 밤에 둥근 달빛에 의해 보여진 하이얀 야생초 꽃은 풍성하고 충만한 자연의 에너지가 가득 차있었다.

소박함과 신선한 푸르름이 가득 차있는 야생초는 누구하나 돌봄 없이도 홀로 자생하여 나름의 자태를 뽐낸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고가도로 위에 라이트를 켜고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차들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 가는 어두운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빛과 빠르게 뒤로 사라지는 가로등의 빛은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우리 곁을 지나쳐가게 된다.

도시의 야경이미지를 네거티브한 필름망점을 크게 하여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프린트하고, 신호등 앞에 대기 중인 차의 이미지와 가로등을 선으로 자유롭게 드로잉하여 석판을 이용하여 프린트하였다. 드로잉한 야생초의 이미지를 목판위에 전사한 후 반투명 흰색으로 프린트하여 마무리하고 먼저 찍어준 밑색이 야생초의 형상을 깊이 있게 드러내주게 된다.

본인의 지문의 표현은 바쁜 도시생활에 인해 자연과 함께 호흡했던 유년시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며,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화면위에 도입하여 본인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유년시절에 보았던 달빛에 의해 풍성하고, 소박한 자태를 보였던 야생초의 기억을 그리며 목판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도시의 야경풍경과 유년시절의 달빛에서 보았던 야생초의 오버랩을 통해, 유년시절의 충만한 자연을 그리워하며, 본인의 현재의 생활과 대비 되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7】 The tree, 180x80cm, Lithograph, Silk screen, Wood cut, 2003

【작품 7】 Wild flower

마음이 답답할 때 산에 오르면 숲을 지나는 바람을 느끼고, 자연의 진한 향기를 맡는다.

숲이 만들어 내는 자연의 소리는 지친 나를 쉬게 해주고,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하나로 통일 시켜준다.

숲 공기 중에 있는 음이온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진정시키며 혈액 순환을 돕는 등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다.

숲은 본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근원적인 깨달음을 전해준다. 본인의 들숨 속에 산소는 바로 나무들이 만든 것이며, 날숨속의 이산화탄소는 나무들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숲에서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본인의 유년시절 주변 환경은 산이 많이 있었기에 산을 자주 오르곤 했다. 손으로 나무를 만지며 쓰다듬고 비비고, 나무의 소리를 바람결을 통해 들으며,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연물과 빈번한 피부 접촉은 영적 교감을 키워가는 통로였다.

인공소리와 인공물에 길들여져 있는 도시의 생활은 본인으로 하여금 유년시절의 충만한 자연을 그리워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이 작업은 고가도로와 가로등, 자동차와 자연의 소리를 내는 숲과의 오버랩을 통해 본인이 성장한 자연의 공간, 시원한 바람의 기억을 되새기며, 추억한 작업이다.

토너가루를 알콜에 희석하여 석판위에 거친 붓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바탕을 거친 터치로 빠르게 스쳐지나가 보이도록 하여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 고자 하였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시의 가속화에 의해 만들어진 고가도로

이미지를 필름 망점을 크게 하여 실크스크린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새벽에 라이트를 켜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자동차의 앞부분을 확대하여 이미지를 조합하여 표현함으로써 도시화의 빠른 변화 체계를 의미 하였다. 고가도로에서 즐비하게 있어 어두운 도로를 밝혀주는 가로등은 석판을 사용하여 찍고, 실크스크린을 사용하여 따뜻한 핑크색을 프린트하여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으로 표현하였다.

MDF목판을 사용하여 나무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드릴로 표현하였고 먼저 찍은 고가도로와 가로등, 바람 등의 이미지를 흐릿하게 나타내기 위해 흰색과 유화물감을 섞어 찍어주고, 어두운 부분은 나무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의도 하였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본인의 지문을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연과 함께 호흡했던 유년 시절을 그리며, 나무와 숲을 통해서 자연과 감응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얻는 교감의 즐거움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8】 Wild flower, 86x55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작품 8】 Wild flower

이 작업은 본인에게 소중한 자리한 유년시절의 자연과의 호흡을 기억하며 진행된다.

집안 마당과 장독대에는 여름이 되면 탐스러운 봉숭아꽃이 피었다. 조금만한 손톱에 붉은 물을 들였던 기억을 회상하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홀로 싹을 틔워 햇빛을 받으면서 서서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꽃을 피워 존재를 인식하게 한다.

으깬 봉숭아를 손톱위에 올려 정성스럽게 묶고, 내일이면 곱게 물든 손톱을 생각하면 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첫눈이 올 때까지 손톱에 붉은색이 남아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도시에서도 화분에 피어있는 작고 힘없는 봉숭아를 가끔씩 보게 된다. 유년에 만났던 봉숭아와 너무나 다른 도시의 봉숭아를 보며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붉고 건강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

배경에 차용한 컴퓨터 프린트의 붉은 색을 강조하여 유년의 봉숭아의 열정적인 느낌을 강조 하였다.

붉은 꽃 이미지의 주변에 사용한 보라색을 아련한 기억과 미묘한 정서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트와 대비를 주기 위하여 목판의 결을 살려 프린트 하였다.

목판은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자동 기술적 표현으로 잎새와 줄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판은 소멸 기법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의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기억속의 야생 붕숭아는 생동하며 흔들리 듯 리듬을 나타내게 되고, 붉은색과 보라의 화려한 발색은 야생의 건강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화면을 가까이서 보면 자율적인 드릴의 흔적과 색 면이 흩어져 있으나, 거리를 두고 보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생동하는 야생초의 이미지로 구축된다.



【작품 9】 Wild flower, 86x55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작품 9] Wild flower

봄날의 따뜻한 느낌이 묻어나도록 작업을 하였다.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시냇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장구를 치며 하루를 보냈다.

먼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지만, 길을 걸어갈 때에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작은 시냇가 근처는 수줍게 흔들리는 들풀으로 가득 차 있고, 자생으로 피어나는 에너지 충만한 들꽃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을 타듯 흔들리는 것은 매력적이었고,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그 리듬에 함께 합류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화사한 핑크빛과 싱그러운 녹색이 온통 들판에 가득 했었던 그 때를 기억하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화려하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해 보이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유년 시절에 보았던 수줍은 들풀들을 지금 나에게 그 어떤 꽃보다 화려하며 생명력과 활기로 충만하게 한다.

컴퓨터 프린트 이미지 위에 목판을 사용하여 선들을 자유롭게, 활동적으로 표현하여 자연에서 뛰 노는 느낌과 동시에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표현하였다.

갓 피어난 꽃봉오리의 생명감을 강조하고자 노란 연두색을 찍어 주었고, 전동드릴과 조각도로 자유롭게 드로잉한 후 하늘색의 바탕을 찍어 주어 대비시켜서 면과 선이 대비되어 꽃대와 꽃의 이미지가 생동하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10】 Wild flower, 86x55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작품 10】 Wild flower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이는 마당 양지바른 꽃밭엔 맨드라미 봉숭아가 흐드러지게 생동한다.

한여름 따가운 햇볕을 받고 자라면 꽃인지 풀인지 모를 만큼 건강한 신체를 자랑한다. 보통의 꽃들은 한여름 땀별에 시들시들하건만 유독 봉숭아 맨드라미는 꼳꼳한 자태를 뽐내던 기억이 새롭다.

디지털 프린트로 들꽃의 이미지를 화면 전면엔 프린트 하여 베니어합판에 조각도와 핸드드릴을 이용하여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익명의 꽃은 드로잉 한다. 추억속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꽃은 맨드라미 같기도 하고 봉숭아 같기도 하고 들풀 같기도 하다. 이렇게 자유로운 이미지를 파내고 푸른창공의 색상을 잉킹하여 먼저 프린트된 들꽃 이미지 위에 찍으면 파낸 곳에 미지의 꽃 기억속의 꽃이 들풀 이미지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들꽃의 화려한 색상과 배경의 하늘색이 대비되어 생동감이 더욱 강조 되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1】 Wild flower, 42x29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작품 11】 Wild flower

녹색조의 색상은 자연의 생명감을 상징하는 색이며, 특히 식물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른 봄에 피어나는 새싹의 연두색부터 한여름 무성한 숲의 청록색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색은 녹색이다.

본인은 녹색으로부터 안정감, 활동적이고 생생한 젊음을 느끼게 된다. 봄의 새싹은 후에 줄기로 자라고 잎과 꽃봉오리를 맺고, 꽃과 열매를 맺는다. 자연의 시간 속에서 순환하는 야생초의 생명력은 매우 신비롭고 놀랍다.

다채로운 색상과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컴퓨터 프린트로 차용하고 목판에는 자연의 질서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조각도와 드릴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야생초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유년시절에서 보았던 기억속의 야생초이다. 작고 수줍은 꽃봉오리는 아침의 이슬과 햇살, 바람에 의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수줍은 꽃 안에서는 자연의 향기를 흘려 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었다.

건강한 줄기와 바람결에 흔들리는 꽃, 흩어지는 향기가 녹색의 색면과 대비되어 선율과 리듬으로 나타나 생동하도록 표현하였다. 자유로운 느낌은 드릴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섬세한 부분은 조각도를 사용하여 드러내도록 표현함으로써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12】 Wild flower, 42x29cm, Digital print, Wood cut, 2004

【작품 12】 Wild flower

대개의 녹색조 식물은 햇빛을 바라보며 자란다. 그 중 특히 해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봉오리를 움직이며 효율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이 있다. 유년시절 집안 울타리 안에서 방긋이 고개를 내밀고 서 있는 한 식물은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는 잎사귀가 한층 더 진한 녹색을 띄었다.

바람이 불 때 건강한 줄기와 잎은 충만한 자연의 에너지로 가득 차 생동감 있는 은은한 자율적 리듬을 만든다. 리듬은 음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생기는 시간적 질서이며, 리듬의 질서는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조절함으로 긴장과 이완을 일으켜 활기를 갖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프린트로 배경에 꽃 이미지를 차용하고, 베니어 목판의 소멸기법을 사용하여 유년의 선명한 꽃 이미지를 조각도를 사용하여 판각하였고, 바람의 흐름에 반응하는 잎과 줄기의 떨림은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건강한 줄기와 잎의 느낌이 느껴지도록 표현하였다. 판각된 꽃 이미지 중심에 디지털 프린트의 꽃이 놓여지게 하여 화려하고 풍성한 자태가 보여 지도록 하고, 흰색물감과 유화물감을 섞어 프린트하여 바탕의 디지털 프린트의 이미지가 흐리게 보여 은은한 깊이가 느껴지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부드럽고 풍부한 색조의 컬러 프린트와, 활력있는 판각의 자유로움이 부딪치며 독특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반투명 연한색 유화의 바탕이 어우러져 떨림의 리듬이 있으면서 생동하는 화면을 이루고자 하였다

V. 결 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 유년기의 환경은 개인의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기억과 경험으로 각인되어 성격과 인격의 형성에 작용한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야생초의 이미지는 유년기에 체험한 주변풍경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름 모를 야생초는 무지한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잡초에 불과하지만, 쓰임새를 아는 사람들에게겐 매우 요긴한 약초이기도 하고 떡 거리가기도하다. 본인은 도시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익명의 야생초를 통하여 자연의 생명감을 떠올리고, 자연생태의 거대한 질서속의 한 개체가 지닌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인간은 인간 중심의 사고로 환경을 파괴하며 문명을 발달시켜 왔으며,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새로운 질병의 출현 등 자연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현대는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로 가속되면서, 원본이나 실제보다 가상이미지로 소통하게 되면서, 인간이 자연을 소외시키듯 물질문명 속에서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은 도구화되고, 상품화 되어 가고 있다.

현란한 문명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은 안식을 찾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며 충전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연을 찾는다.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자연의 떡 거리 없이는 인간은 생명을 유지 할 수조차 없고 생애를 다 하면 자연의 품 흙으로 돌아가는 데에도 자연의 질서를 잊고 산다.

본인은 작품에 야생초를 강인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자연의 생

명감을 담고 싶고, 존재가 지닌 태생적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내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현존하는 주변의 야생초를 차용하기도 하며 본인의 신체의 떨림이나 전동드릴의 자율적 진동을 통하여 살아 있는 듯한 리듬감을 강조하여 진행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밝힌 작품 제작 동기를 바탕으로 “들풀의 생태를 통해 본 자율적 리듬 표현”에 관하여 제시된 개념과 적용한 조형 언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간은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자연적 존재이며, 삶의 유지와 휴식에 자연의 생명력은 매우 소중한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변의 야생초목의 이미지를 소재로 작업을 하였다.

야생초의 이미지를 살아 있는 생명감 넘치는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 바람에 저항하는 몸짓을 나타내도록 움직임이 강조 되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제작 기법은 자율적인 에너지가 리듬을 타듯 표현하기 위하여 본인신체의 행위가 자유롭게 드로잉화 된 것처럼, 활력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목판과 실크스크린, 석판화, 동판화의 사용에 있어서 각 판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미지가 동적으로 자율성이 강조되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업에 도입된 이미지는 일반적인 시점이나 구도가 아닌 화면에서 대비를 통하여 생동하는 느낌이 강조되도록 유기적인 조합과 주관적 상징으로 생명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인의 조형은 선형하여 본인 안에 내재한 유년의 기억과, 현존하는 주변의 자연 가운데 생명감과 존재감을 상징할 수 있는 야생초의 이미지를 선택하였고, 제작 과정에서 자율적 생동감과 생명력 있는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인한 듯한 본인신체의 역동성을 도입하고, 각 판화기법도 섞이거나 조화로운 방법보다는 대비되며, 서로 드러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간에 존중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의 질서를 닮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들풀, 초목, 주변의 이미지가 어떤 동기와 배경에서 도입되었는지를 조명할 수 있었고, 사용된 조형 언어가 제작 동기와 매우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작업의 결과에는 개념적 이유와 작품제작 기법의 조형성이 언어처럼 개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작업 안에 형성되고 있는 생동하는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었다. 본인의 기억과 정서, 세계관을 반영하면서도 독자적인 기법을 적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쉽게 다룰 수 있는 목판을 사용하면서 신체의 자율성에, 자동기술적인 판각을 도입하여 리듬과 생동감을 살리고 이에 디지털 프린트를 접목하여 보다 생동하는 유기적 표현으로 전환하였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의도와 실제 작업사이에 본인의 태도의 불분명함과 조형기법의 적극성의 부족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 있는 작품크기를 선보였으면 하는 것과 들풀을 넘어서 더욱 생명감 있는 수목이나 숲의 느낌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의 세계관과 조형관을 정리해 볼 수 있었고, 더욱 더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작품제작을 꿈꾸며 계획하는 발전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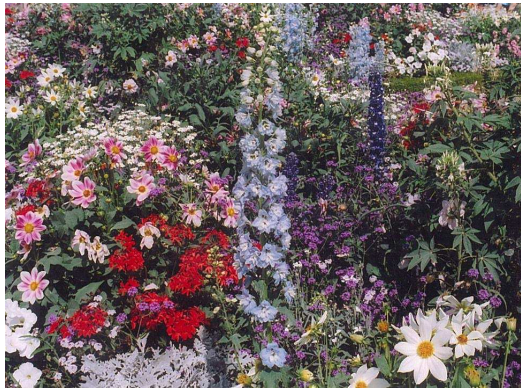
참 고 도 판



(도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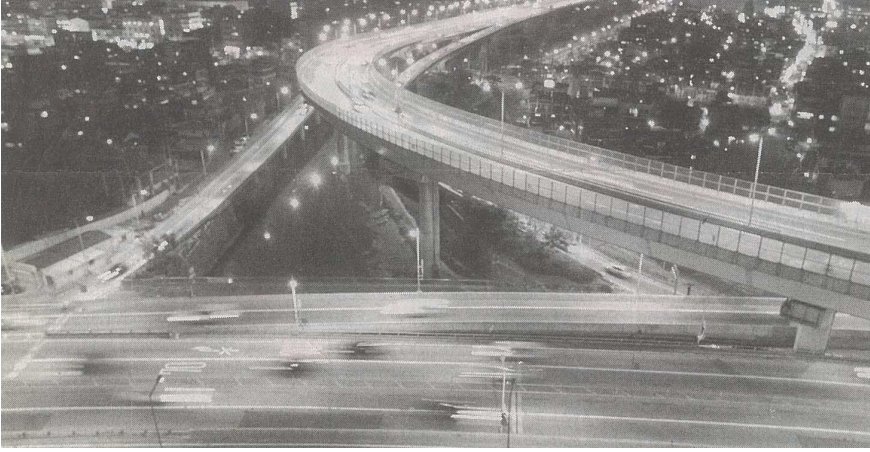
(도판 2)



(도판 3)



(도판 4)



(도판 5)



(도판 6)

참 고 문 헌

1차 참고 문헌

- 미래환경 연구소, [지구촌 환경 이래도 될까], 범우사, 1995
- 박이문, [환경 철학], 미다스 북, 2002
- 송상용외 22명공저, [생명에 대한 예의], 환경과 생명, 2002
- 이상훈, [어느 환경주의자의 생명사랑 이야기], 그물코, 2003
- 전영우, [숲 보기 읽기 담기], 현암사, 2003
- 정해창, [인간성 상실과 위기극복], 철학과 현실사, 1995
- H.J 맥클로 스키,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생태학 접근], 범영사, 1995, 황경
식, 김상우 옮김

2차 참고 문헌

-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1999
- 최병두,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한울, 1999
- 최동석, [함께하는 환경 철학], 동연, 2003

ABSTRACT

Study on Expression with Autonomous Rhyme through the Life of Wild flower

Son Ja-Kyoung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studying and analyzing the works that I made while in graduate school from 2002 to 2004, which were mainly presented before an application for a master's degree.

I attempted to analyze the works from various angles by examining the motive, technique and process of production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y art view and my works.

After industrial society, the material civilization has been extremely developed and brought us material prosperity and convenience. On the other hand, as industrial development and urban expansion have destroyed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logical propriety and balance in creation order, the ecosystem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s. Eventually, the deteriorated environment became unable to provide comfort and rest to people.

Art i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Therefore, directly and indirectly, the interests in art, environment and reality are displayed in works of art

reflecting a mentality of the time.

My works aimed at expressing the autonomous freshness through wild grass, which stands for the nature falling into oblivion with the spread of modernization.

Naturally growing wild plants that I found on the skirts of a city and in my life have enduring vitality and yet are being neglected by the modern society.

In my paintings, wild plants serve as a medium that symbolizes life and an autonomous being to which I add animation utilizing drawing expression and printmaking technique.

Even though the moderns are enjoying a fully measure of convenience in the urban environment, they are not blessed with the true peace of body and soul as a natural man. While the moderns have a desire to rest in nature, they ruin the environment with the material civilization as a name of development.

I try to add metaphoric expressions to the wild plants with no certain name and evoke the emotional catharsis. That way, I am able to exhibit my message that people's barren emotion in the material civilization can be revived by communing with the energy in nature.

I believe we can find an inducement that cultivates a subjective and autonomous self with vivacity rather than helplessness and insipidity, inside the paintings expressing the vivid nature. Therefore, I hope the natural and rich life is led through the restoration of human nature with the help of arts filled with autonomous vitality.

As I apply my philosophy to the technique using drawing expression and printmaking media and accentuate the vitality in nature and the existence of the vigour in wild plants,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a mentality through the autonomous energy.

Throughout this study, I reconfirmed ecological vitality by adopting wild plants as a symbolic image for nature and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attaining a humane life through the restoration of emotion and return to nature. My creative activity of a painting suggests that arts be developed into the area which can make a contribution to the moderns' emotional fertility through the restoration of vitality.